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아이오닉5·EV6, 테슬라 넘었다

독일 전문지, SUV 전기차 평가서 1·2위
아이오닉5, 64점차로 테슬라 모델Y 제쳐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가 실시한 비교 평가에서 테슬라 모델Y를 제치고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아이오닉 5와 EV6는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가 실시한 4개 SUV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우토 빌트(AutoBild),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 평가는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모델Y, 포드 머스탱 마하-E 등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컴포트 ▲파워트레인 ▲주행거동 ▲환경 ▲비용 등 7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아이오닉 5는 7가지 평가 항목 중 바디, 안전성, 컴포트 등 4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650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Y는 586점, 포드 머스탱 마하-E는 566점을 획득했다. 모델Y와는 64점차, 머스탱 마하-E와는 84점차라는 큰 점수차로 압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아이오닉 5는 승차감과 정숙성, 편의 사양과 관련된 컴포트 항목에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12점을 받았으며 주행 안전성과 제동거리, 안전장비 등의 세부 평가 항목이 포함된 안전성 항목에서도 경쟁차를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실내공간, 다용도성·기능성, 전방위 시계 등을 평가하는 바디 항목에서도 비교 차량 대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이오닉 5는 체격이 큰 성인 5명과 수하물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 라운지 같은 편안한 앞좌석도 장점"이라며 "매끄럽고 단호한 곡선 주행을 보여준다는 점과 차량의 움직임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고 핸들링이 기민한 점도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했다.

EV6는 총점 636점으로 테슬라 모델Y, 포트 머스탱 마하-E를 제치고 종합 2위를 기록했다. EV6는 7가지 평가 항목 중 핸들링, 주행 다이내믹 등의 세부 항목이 포함된 주행거동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컴포트와 안전성, 바디 항목에서도 해외 경쟁차를 제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EV6는 다른 리그, 다른 시대에 있는 차 같다"고 칭찬하며 "매끄럽지만 과장되지 않고 목표 지향적인 정확성을 갖춘 스티어링으로 민첩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평가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시승기

럭셔리 그 이상…더 업그레이드 된 'SUV 제왕'

전장 5765mm의 상상초월 크기
120km 주행에도 편안한 승차감
실내엔 38인치 디스플레이 눈길
AR내비게이션 등 첨단사양 충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롱휠베이스 버전인 에스컬레이드 ESV는 5765mm라는 압도적인 전장을 자랑한다. 3열만 폴딩해도 2665L의 공간이 확보되는 광활한 실내공간과 증강현실 AR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38인치 LG 커브드-OLED 디스플레이(위부터 시계방향). 원성열 기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주요 제원

엔진타입	6.2l V8 가솔린 직분사
배기량(cc)	6162
최고출력(ps/rpm)	426 / 5,600
최대토크(kg.m/rpm)	63.6 / 4,100
연비(km/L)	복합 6.5 (도심 5.8 / 고속도로 7.8) / 5등급
구동방식	사륜구동
변속기	자동 10단
가격	1억6357만 원(개소세 3.5% 기준)

'SUV의 제왕', '대통령 경호 차량', '기업 오너들이 대형 세단 대신 선택하는 차량'.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인 에스컬레이드를 말할 때 따라오는 수식어들이다. 기존 에스컬레이드 만으로도 '제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는데, 캐딜락에서 이번에는 에스컬레이드 ESV를 내놨다. 기존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바디를 더 확장한 롱 휠 베이스 모델이다. 얼마나 압도적일까. 서울에서 연천까지 왕복 120km 구간에서 에스컬레이드 ESV를 시승했다.

●경쟁 상대가 없는 압도적 크기

에스컬레이드 ESV는 대형 럭셔리 세단을 넘어서는 탁월한 승차감과 초대형 SUV에서만 가능한 압도적인 공간 활용성을 모두 갖춘 대체 불가능한 차종이다.

일단 차체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대형 SUV도 중형 세단처럼 쉽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에스컬레이드 ESV의 운전석에 앉는 순간 차체 크기에 압도당해버렸다.

롱휠베이스 모델인 에스컬레이드 ESV는 에스컬레이드(5380mm)보다 385mm 길어진 5765mm라는 경이적인 전장을 갖추고 있다. 휠베이스만 3407mm로 국내 출시된 SUV 모델 중 가장 길다.

덕분에 실내 공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기본 트렁크 공간만 1175L다. 알기 쉽게 비교해보자면 국내 중형 SUV 중 가장 넉넉한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 쏘렌토의 전장은 4810mm, 휠베이스는 2815mm, 트렁크 공간은 705L다. 실내 공간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휠베이스로 비교해보면 에스컬레이드 ESV가 무려 539mm나 더 길다.

3열만 폴딩해도 2665L의 공간이 확보되고, 완전히 평평하게 폴딩되기 때문에 키 180cm의 성인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그 어떤 수입 대형 SUV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활한 공간이며, 경쟁 상대는 없다.

●대형 세단을 넘어서는 승차감

에스컬레이드 ESV에는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최고출력은 426 마력, 최대토크는 63.6kg·m이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저속~고속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영역에서도 넉넉하고 부드러운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

승차감은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독일 3사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뛰어난 강성과 견고함을 지닌 프레임 바디 SUV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 응답력을 자동 조절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최대 75mm까지 높낮이를 조절하는 에어 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뒷좌석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멀티링크 독립식 리어 서스펜션 등을 적용한 덕분에 어떤 노면 조건에서도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달해준다.

어지간한 높이의 방지턱은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수준이고, 시속 120km 이상에서도 속도감 자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정정인 승차감을 발휘한다. 왜 기업 오너들이 대형 세단을 마다하고 이 차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독일 3사 플래그십 뛰어넘는 럭셔리함

캐딜락은 그저 차체 크기만 큰 차가 아니다. 독일 3사의 플래그십 모델들을 압도하는 첨단 사양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운전석에 앉으면 38인치 LG 커브드-OLED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압도한다. 4K급 화질을 넘어서는 선명도가 인상적이다. 3개의 스크린으로 분할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면서 차량 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스티어링휠 바로 앞쪽의 화면에는 전방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실시간 화면에 내비게이션 정보를 증강현실로 표시해주는 AR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 화질이 매우 뛰어나고, 응답 지연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밤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적용된 나이트 비전(Night Vision) 기능을 통해 더 안전한 야간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앞좌석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2열에는 12.6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냉장 및 냉동 기능이 포함된 콘솔 쿨러가 적용되는 등 장거리 여행을 위한 풍선한 편의사양도 적용되어 있다. 캐딜락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36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의 풍성한 사운드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가격은 1억6357만 원(개소세 3.5% 기준)이다. 연천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압도적인 존재감…BMW 뉴 7시리즈 공개

더 럭셔리해진 디자인·더 커진 차체
미래지향적 실내…첨단사양도 풍성



BMW가 더 커진 차체와 혁신적인 첨단 사양을 담은 뉴 7시리즈를 공개했다.

7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뉴 7시리즈는 차체 크기를 키워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플래그십 세단으로 거듭났다. 이전 세대에 비해 길이 130mm, 너비 48mm, 높이 51mm를 키웠다. 실내 공간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3215mm로 이전 세대의 롱휠베이스 모델보다 5mm가 더 길어졌다.

디자인은 더 럭셔리해졌다. 자체 앞면에는 윤곽조명이 적용된 BMW 키드니 그릴, 'L'자 모양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조명이 내장된 헤드램프 등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실내는 더 혁신적이다. 앞좌석에는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또한 최초로 스티어링 휠 뒤쪽 정보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뷰를 적용해 차별화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BMW 시어터 스크린도 처음 적용된다. 천장에서 펼쳐져 내려오는 BMW 시어터 스크린은 32:9 비율의 31.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며, 8K 해상도를 지원한다. 5G 호환 안테나 시스템을 적용해 고속 커넥티비티 기능도 갖추고 있다.

내연기관부터 초고성능 PHEV 및 순수 전기 모델을 아우르는 폭넓은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7시리즈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인 i7도 함께 선보였다. BMW의 5세대 eDrive 시스템이 적용된 BMW i7 xDrive60은 2개의 전기모터로 최고출력 544마력을 발휘하며, 101.7kWh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625km(WLTP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차세대 7시리즈 및 순수 전기 모델인 i7는 올 하반기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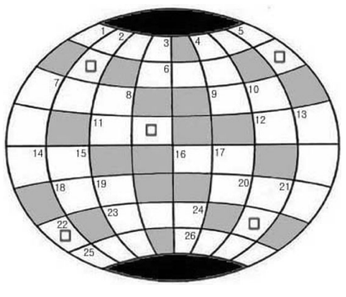
7		9				6		5
			7		5			
5				1	6			7
	4	3		8			9	
		2	4		3	1		
	6			2		4	5	
6			9	5				2
			6		2			
2		1				5		4

			8	1	9		7	
5	1	9					3	
			4				9	
3				4		6		7
1			7		3			2
9		8		6				3
	6				1			
	9					7	6	5
	3		2	9	6			

■ 스도쿠정답

4	6	5	8	7	3	1	9	2
9	1	7	2	4	5	9	8	3
2	8	3	9	6	1	4	5	7
8	7	6	1	9	4	5	2	3
3	5	4	6	2	8	7	1	9
1	9	2	7	5	3	8	6	4
5	4	8	3	1	2	6	7	9
6	3	9	4	8	7	2	5	1
7	2	1	5	3	6	9	4	8

■낱말문제



■가로 열쇠

01.긴 장대와 같은 큰 붓, 힘 있고 웅대한 글을 이르는 말. 04.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06.국가·민족·개인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신. 07.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 09.이성의 사랑을 구함. 11.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12.기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름. 14.아름다운 얼굴 모습. 16.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 18.흘러 나감.20.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일. 23.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춘정을 느낄 만한 나이. 25.성명을 적어서 가슴에 다는 표. 26.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함.

■세로 열쇠

02.개의 새끼. 03.꼭 필요로 함. 04.몸치장하는 데 쓰는 제구. 05.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07.사람다운 정겨운 맛. 08.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10.슬픔과 기쁨. 13.물오른 버들가지나 짤막한 밀짚 토막으로 만든 피리. 15.제 어미의 젖. 17.손이나 발에 생기는 사마귀 비슷한 굳은살. 19.출병할 때에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 21.음식을 조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22.나이가 어린 사람. 24.한글 자모 'ㄱ'의 이름.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